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JINJU TRADITIONAL CRAFTS BIENNALE	보도자료 오늘의 공예, 내일의 전통
배포 일시	2023. 10. 5.(목) 12:00

‘오늘의 공예, 내일의 전통’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개최
-11. 1.~ 30. 국내 작가 37명, 해외 창의도시 작가 10명 180여 점 전시-

진주시(시장 조규일,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장)는 2021년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후 2023년 두 번째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 도시로 지정된 진주시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 간 교류의 목적과 함께 공예 문화의 발전과 지역 고유의 공예산업 발전을 목표로 진주의 공예, 나아가 한국공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공예문화산업과 함께 이끌어 가고자 한다.

근대 문화유산 ‘진주역 차량정비고’(등록 문화재 제202호), 일호광장 진주역사에서 본전시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는 전통의 기술과 정신을 계승하는 4대 공예(도자, 목, 금속, 섬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작가만의 고유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대표 중진 작가 37명과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 도시 10개 도시를 대표하는 해외 작가 10명이 참여한다.



진주시 |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장소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남길 30,(계)진주문화관광재단

연락처 +82-55-795-3200

홈페이지 <http://jinjubienale.kr/>

‘오늘의 공예, 내일의 전통’을 주제로 하는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의 전통공예는 본연의 공예성(공예 정신)과 전통의 창조적 재해석에 기반한다. 전통공예는 오늘의 전통을 세우고 내일의 전통으로 이어지며 자연법칙과 조화하는 공예작가의 노동과 정신의 산물이다. 오늘의 공예는 내일의 새로운 전통을 향한다.

1925년 건립된 진주역 차량 정비고는 당시 진주가 서부 경남지역의 인적, 물적 수송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의 본전시장으로 진주역 차량정비고는 멈추지 않는 창조적 전통을 세워나가는 오늘의 공예작품을 선보이는 최적의 장소이다. 현재 주변을 철도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진주시의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진주소목 in Design’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프레오픈 서울전시

먼저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의 프레오픈 서울전시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KCDF Gallery)에서 지난 9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에 개막식을 시작하였으며 10월 8일까지 열린다. 이번 서울전시는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본전시를 홍보하기 위해 진주의 대표 공예인 소목 작품들로만 구성하여 전시한다. 인접한 지리산의 풍부한 목재와 진주 고유의 문화예술 역사와 함께 진주소목은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진주소목 in Design’프로젝트는 진주 소목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6명의 소목장과 6명의 현대 가구 디자이너의 디자인협업프로젝트 결과 작품 20점과 진주 전통소목 작품 8점이 전시되고 있다.

협업에 참여한 진주시의 소목 장인은 정진호(단원공방, 경남도 무형

문화재 제29호), 조복래(취목공방, 경남도 무형문화재 제29호), 김병수(한송공방, 대한민국 가구 명장), 강종렬(고전공방, 소목 제작 50년), 구한희(율목공방,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정권석(의천공방,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이다. 전통소목에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입힌 작가는 하지훈(계원예술대학교 리빙디자인과 교수), 이현정(상명대학교 초빙교수), 정명택(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교수), 김경원(카인드 대표), 황형신(스튜디오에이치 대표), 김정섭(창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이다.

- 붙임 1.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전시개요
2. 조일상 예술감독 약력
3. 전시 공간 및 로고 소개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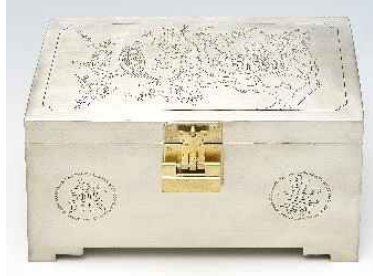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전시개요

□ 전시 개요

- 전 시 명: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 기 간: 2023. 11. 1.(수)~30.(목) / 30일간
※ 개막식 2023. 10. 31.(화) 오후 3시
- 장 소: 진주역 차량정비고 및
일호광장 진주역(철도문화공원 內)
- 주 최: 진주시,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 주 제: 오늘의 공예, 내일의 전통
(Today's Crafts, Tomorrow's Tradition)
- 전시내용: 전통의 기술과 재료, 공예정신의 바탕 위에 4대 공예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분야를 대표
하는 공예작품들을 통해 오늘의 공예로 새로운 전통
을 조망하는 전시
- 전시구성: 국내 대표 중진 공예작가 37명과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를 대표하는 작가 10명, 180여 점
출품
- 동반행사: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문화예술 택배, 전통공
예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진주실크 레지던스
- 학술행사: '전통,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
(프랑스문화예술학회 공동주최)
- 연계행사: 진주공예인전 및 공예체험프로그램
- 참여프로그램: 시민도슨트 및 SNS서포터즈 모집 운영

○ 작가별 대표 작품 이미지

		
<p>김지혜</p>	<p>박동엽</p>	<p>이인진</p>
		
<p>이현정</p>	<p>윤솔</p>	<p>정재효</p>
		
<p>최성재</p>	<p>문보리</p>	<p>김석영</p>
		
<p>김현주</p>	<p>정용진</p>	<p>천우선</p>

		
<p>황보지형</p>	<p>이경노</p>	<p>임장식</p>
		
<p>김우길</p>	<p>김민욱</p>	<p>김현희</p>
		
<p>권원덕</p>		



○ 진주소목 in Design 대표 작품 이미지

		
<p>강종렬(고전공방)x이현정</p>	<p>강종렬(고전공방)</p>	<p>구한희(율목공방)x김경원</p>
		
<p>구한희(율목공방)</p>	<p>김병수(한송공방)x김정섭</p>	<p>김병수(한송공방)</p>
		
<p>정권석(의천공방)x황형신</p>	<p>정권석(의천공방)</p>	<p>정진호(단원공방)x하지훈</p>

		
<p>정진호(단원공방)</p>	<p>조복래(취목공방)x정명택</p>	<p>조복래(취목공방)</p>

○ 국외 창의도시 대표 작품 이미지

	
<p>Sibel temelkiran(Kutahya)</p>	<p>Komol Kongcharoen(Chiang Mai)</p>
	
<p>Shinya Yamamura(Kanazawa)</p>	<p>Ichino Gensho(Sasayama)</p>
	
<p>ROBERTA REDAELLI(Como)</p>	<p>Tsvyatko Penev Tsvyatkov(Gabrovo)</p>
	
<p>Marian Fox(Ballarat)</p>	<p>Justine Riley(Paducah)</p>

	
<p>ADAMU MOHAMMED BABAKAKA(Bida)</p>	<p>TAPSOBA GAFAROU (Ouagadougou)</p>

붙임 2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 약력



조 일 상(1946~ 曹日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부산시립미술관장 역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장 역임

문화재청 무형 문화재위원회 위원 역임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역임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대학 연구교수 역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전추천작가

보관문화훈장(행정안전부)

황조근정훈장(행정안전부장관)

일본외무대신표창(일본외무성)

제2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국무총리상(총무처장관)

붙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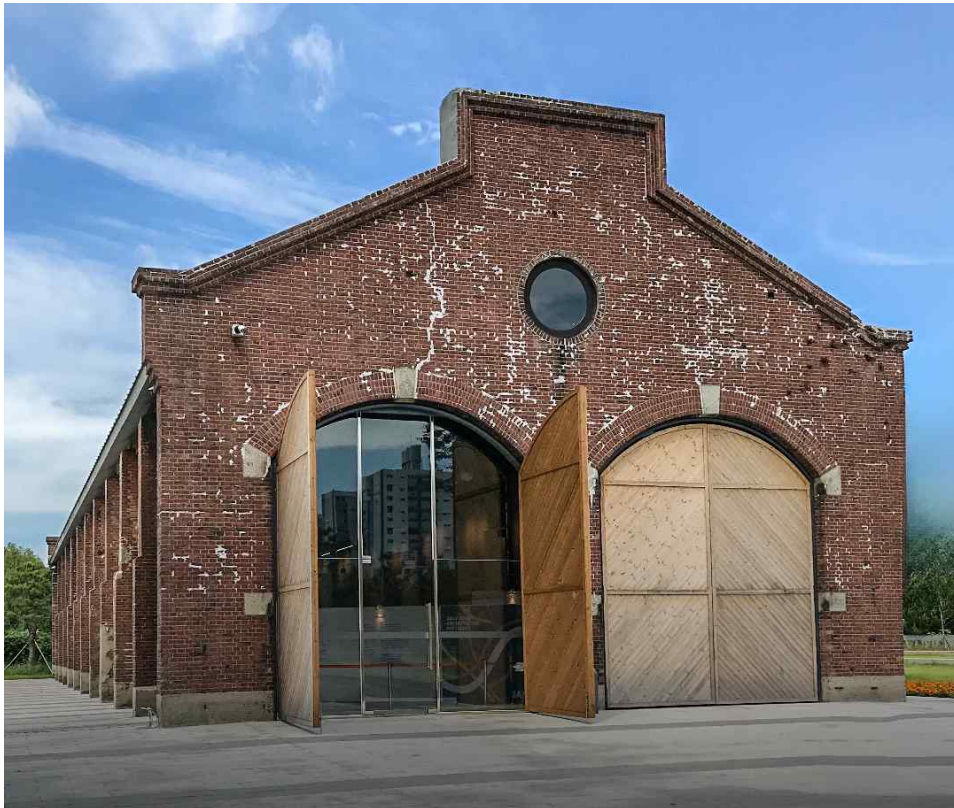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전시공간 및 티

□ 진주역 차량정비고

등록 문화재 제 202호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

Maintenance Workshop in Jinju Station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202 Built around 1925



경전선과 호남선을 개통하면서 진주역에 설치한 차량정비고이다. 아치형 출입구 2개를 나란히 배치하였으며, 중앙 상부에 솟을지붕을 만들기 위해 왕대공 트러스를 변형하여 구성하였다. 건물 정면 가운데 위쪽에는 둥근 창을 설치하였고, 왼쪽과 오른쪽 벽면에는 지붕트러스를 받치도록 버팀벽을 설치하였다. 벽면에는 한국전쟁 때의 비

행기 기관총 사격을 받은 총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해준다.

1923년 마산-진주를 잇는 경남선 개통과 함께 1925년 건립된 진주역에 역이 세워질 당시 함께 건립된 차량 정비고는 당시 진주가 서부 경남지역의 인적, 물적 수송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는 건물로써 의미가 있다.



□ 철도문화공원 内 전시장 구성도



□ 2023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공식 TI(Event Identity)

진주를 대표하는 전통공예 ‘진주소목’ 중 진주반단이의 매미장식을 모티브로 안정적인 구조와 기하학적 형태로 경첩의 기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JINJU TRADITIONAL CRAFTS BIENNALE